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시리아 기독교인들, 반군 통제하 심각한 위기 직면**



국제 기독교 단체들은 시리아에서 이슬람주의 반군 통제 하에 기독교인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반군이 주요 도시를 점령하고,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은 러시아로 망명했다. 반군은 하야트 타흐리트 알샤ם(HTS)의 주축인 무함마드 알바시르를 총리로 추대했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ICC)에 따르면 반군이 점령한 후, 한때 수십만 명에 달했던 알레포의 기독교 인구가 현재 약 3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생존을 위협하는 열악한 환경과 빵과 식수도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HTS가 오후 5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통행

금지로 일상생활이 극도로 제한됐다.

다마스쿠스와 알레포를 잇는 주요 도로가 차단되면서 주민들은 위험한 우회로를 이용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어느 기독교 의사는 도시를 탈출하려다 저격수에 의해 사망했고, 기독교 청년들이 탄 버스는 알레포 도로에서 고립되기도 했다.

국제기독교연대(CSI)는 “HTS가 과거 기독교인을 겨냥한 폭력, 납치, 재산 몰수 등을 저질렀다”며 “기독교 소수자가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HTS의 이념에 따라 기독교인은 추가 세금(jizya)을 부과받고 법적으로 차별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크리스천 릴리프(GCR)의 데이비드 커리(David Curry) 대표는 “지난 2년간 우리는 현지 교회에 식량과 생필품 등을 지원해왔으나, 일부는 반군들에게 빼앗겼다”며 “현재 이 지역은 기독교인에게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있어 되도록 조심스럽게 현재 피난 중인 이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 이 지역은 기독교인에게 매우 위험하다. 반군이 몇 주 전 훔친 지원품은 약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식량과 물과 약품이 들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테러단체로 간주되는 HTS는 2주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시리아 북서부(알레포와 그 너머 포함)에서 쿠르드족과 기독교인을 인종청소했다. 그들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알레포의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다. 그들은 “주님께서 무장 충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갈등들을 끝내주셔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할 지혜와 용기, 힘, 그리고 필요한 수단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데일리굿뉴스 종합).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로마서 12:12-15)**

하나님, 시리아에 내전은 종식되었지만, 이슬람주의 반군의 횡포로 구호품을 약탈당하며 감시와 통제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호해 주소서. 상황과 기회를 틈타 스스로 왕이 되어 같은 악을 행하려는 반군 세력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주께서 시리아 성도들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고난과 박해에도 붙들 믿음의 근거가 되어주셔서 환난 중에도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지혜와 용기를 이들에게 더하여 주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열방의 교회들의 섬김을 통해 시리아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 모잠비크, 사이클론 ‘치도’로 최소 34명 사망

열대성 폭풍 사이클론 ‘치도(Chido)’가 휩쓸고 지나간 모잠비크에서 최소 34명이 숨졌다고 연합뉴스가 AFP통신 등을 인용해 17일 전했다. 지난 15일 최고 시속 260km의 돌풍과 함께 24시간 동안 약 250mm의 폭우를 동반한 치도가 모잠비크 북부 카부델가두주에 상륙했다. 모잠비크 국립재난관리청은 사이클론 치도로 카부델가두주에서 28명이 숨지고 남플라주에서 3명, 서북부 내륙의 니아사주에서 3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 밖에 319명이 다치고 주택 약 2만 3,600채와 어선 170척이 부서졌으며 17만 5,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한편 말라위에서도 치도로 최소 7명이 숨지고 3만 4,74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현지 재난관리부를 인용해 신화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치도는 지난 14일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 코모로 제도의 프랑스랭 마요트섬을 강타해, 공식 사망자 22명, 부상자는 1,400명으로 집계됐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시편 55:1,8)**

하나님, 마요트섬을 강타했던 초강력 사이클론이 모잠비크에도 그 영향을 미쳐 사망자를 낳고 주택과 삶의 터전이 파괴되어 갈 곳을 잃은 수만 명의 이재민들을 돌봐주십시오. 혼합주의와 정령숭배가 많은 이 나라에 모잠비크 교회가 더욱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함께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소서. 이를 통해 모든 영혼이 피난처 되신 주님께 나아가 광풍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주께 돌아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모잠비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소서.

### ▲ 미국 뉴욕시장 “실종된 이주 아동 50만 명 인신매매 우려돼”

미국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바이든 행정부에서 불법 이민이 급증함에 따라 수십만 명의 실종된 이주 아동이 이들이 아동 노동, 성범죄, 착취 등 인신매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애덤스 시장은 “미국 이민 및 세관 집행국(ICE)은 국토안보부(DHS)와 보건복지부(HHS) 구급에서 풀려난 모든 비보호 이주 아동을 감시할 수 없다”며 이주 아동 50만 명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국토안보부 감찰관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3년 44만 8,000명의 미성년 이주 아동이 보건복지부의 난민재정착서비스(ORR)로 인계됐지만, 이 중 다수는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보호자가 없는 불법 이민자 아동 3만 2,000명은 이민 법원 심리에 나타나지 않았고 29만 1,000명 이상은 법원 출두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이에 보고서는 이 아동들은 당국의 보호망 밖에 있어 인신매매, 착취, 강제노동에 취약하다며 문제의 원인으로 세관 집행국과 보건복지부 간 소통 부족과 후견인 심사 부실을 지목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 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시편 10:14,18)**

하나님, 미국에 불법 이민이 급증함으로 인해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이주 아동 50만 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부모나 보호자 없이 혼자 들어온 비보호 이주 아동들의 상황을 노리고 범죄에 이용하려는 탐심 가득한 자들을 꾸짖어 주시고 어린 영혼들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소서. 이때 미국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이웃 사랑을 순종케 하옵소서.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이들이 살아갈 이유와 소망을 찾게 하시고 고아와 외로운 자들의 부모와 친구가 되어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에 의지할 힘과 반석으로 삼게 하소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프랭클린 그레함, 성탄의 진정한 의미 전해...1만 4,000명 참석**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12월 첫 주 주말 라오스에서 1만 4,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성경 메시지를 전했다. 그레함 목사는 라오 복음주의 교회와 협력해 ‘사랑의 크리스마스 축제’를 비엔티엔에 위치한 생필라 컨벤션 홀에서 개최했으며, 믿는 이들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함께 모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그레함 목사는 다른 것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를 꼭 기억하라고 전했다. 가득 찬 경기장에서는 찬양 리더들인 채리티 게일(Charity Gayle), 토미 쿨즈 밴드(Tommy Coomes Band), 라오 복음주의 교회 찬양팀이 함께 예배를 인도했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이틀간의 행사가 수년간 준비된 것이라면서 “라오 복음주의 교회의 초청으로 비엔티엔에 오게 된 것은 큰 특권이자 영광이었다. 그들은 수년간 이 기회를 위해 기도해왔다. 특히 저를 환영해 주시고 복음주의 교회에 이 놀라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전도집회의 결과로 1만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복음 메시지를 들었으며 수백 명이 주님께 믿음을 두기로 결단했다. 그레함 목사는 “라오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유롭게 찬양하며,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과 신뢰를 두는 모습을 보는 것은 축복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둔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기뻐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나눴다.

이날 말리와 그녀의 두 어린 딸은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했다. 말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복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래서 여기에 오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믿게 됐다”고 말했다. 말리는 남편에게 자신이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남편은 믿는 이가 아니며,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 머물기로 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6)**

하나님, 공산국가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 나라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주를 예배하며 선포된 복음을 통해 수백 명의 결신자가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심령에 심기어진 복음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몸 된 교회가 더욱 이 땅을 위한 간구의 손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기독교를 향한 정부의 박해가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라오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사랑의 고백이 모든 영혼의 심령에 들려져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소서.

##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 수단, 반군 무인기 폭격으로 38명 사망

수단 서부 북다르푸르주 엘파세르의 한 시장에서 15일 내전 중인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RSF)이 무인기 한 대로 시장 한 복판을 폭격하면서 38명이 사망했다고 뉴시스가 16일 신화통신 등을 인용해 전했다. 앞서 수단의 국영 SUNA통신은 신속지원군의 무인기가 엘파세르 시내 알라드 알-리피 구역에 있는 한 시장을 공습해서 15명이 죽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엘파세르에서 활동 중인 지역 시민단체인 '저항 협력 조직위원회(CRC)'는 "알라드 알리프 구역의 사망자 수가 15명이 아니라 38명으로 늘어났다"며 이를 대량 학살이라고 규정했다. 유엔 등 국제기구 통계에 따르면, 수단에서는 2023년 4월 15일부터 정부군(SAF)과 반군(RSF) 간 내전이 시작된 이후 2만 8,700명이 사망했고 1,4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피난민이 발생했다.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시편 9:12-13)**

하나님,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으로 고통과 혼잡 속에 있는 수단에 무인기를 이용한 반군의 공습으로 수십 명이 사망한 이 땅을 돌봐주십시오. 다르푸르의 오랜 신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자신만의 이익을 좇아 분쟁을 일으키는 피 흘림을 심문하시고 꾸짖어 주소서. 주여, 속히 이 땅에 분쟁이 멈춰지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사 친히 이들의 공급자가 되어주소서. 복음의 은혜를 수단에 베푸사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고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모두가 의지하게 하옵소서.

### ▲ 한국 개신교 비율 20%… 무종교 51%

한국 개신교 신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했으며, 특히 무종교가 51%를 차지했다. 한국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성인남녀 2만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교 신자는 17%, 천주교 신자는 11%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종교 신자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개신교의 경우 18-29세는 13%, 70세 이상은 29%였으며, 불교와 천주교 역시 고연령층 비율이 높았다. 반면, 무교 비율은 젊은 층에서 압도적으로 높아 18-29세의 69%가 종교가 없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여성의 종교 인구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여성 중 개신교 비율은 22%, 불교는 17%, 천주교는 12%였고, 남성은 각각 18%, 16%, 10%였다. 무교 비율은 남성(55%)이 여성(47%)보다 높았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시편 53:1,6)**

하나님, 한국교회의 부흥이 지나간 때로 기억될 만큼 무종교 수치가 전체 인구의 반절 이상을 넘어서고 있는 대한민국의 실상을 주께 고합니다. 특별히 그 비율이 높은 젊은세대를 주께 의탁하오니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 백성들을 꾸짖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 땅의 해답은 더욱 그리스도시요, 그를 전부로 믿고 살아가는 증인임을 믿습니다. 부패한 마음에서 떠나 내가 먼저 그런 증인이 되고 한국교회가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어둡고 혼탁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는 자가 되어 주의 공의가 회복되는 나라되게 하소서.

##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인도양 마요트섬 폭풍에 수백 명 사망 우려



인도양에 있는 프랑스 해외영토 마요트섬을 강타한 초강력 사이클론으로 수백 명이 사망했을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고 영국 BBC 방송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는 최고 풍속 225km/h에 이르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사이클론 ‘치도’로 마요트섬 주거 지역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BBC는 특히 프랑스 망명 신청을 위해 온 서류 미비 이민자를 포함해 가난한 사람들이 머물던 임시 주거지의 피해가 컸다면서 이재민들도 사흘째 식량과 식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BBC는 일부 프랑스 본토 구조대가 마요트섬에 도착해 수색 구조활동에 들어갔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수색구조작업 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 피해 주민은 사이클론 치도가 닳치면서 동네 전체가 사라지는 것을 봤다면서 핵전쟁이 쓸고 지나간 결과를 보는 같은 비극적인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프랑스어 자비에 비외비에 마요트섬 주지사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사망자가 수색구조작업이 마무리되면 희생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사망자가 수백 명에 달할 것이며 수천 명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마요트섬 방문 예정인 브뤼노 르타이오 프랑스 내무장관도 사이클론 치도가 낳은 “예외적인 심각성”을 알고 있다면서 현지 주민을 돕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프리카 동쪽 코모로 제도에 위치한 인구 마요트섬은 프랑스의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빈곤과 실업, 정치적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32만 명의 인구 중 75%가 빈곤선 이하에 살고 있으며 실업률은 3분의 1에 달하고 있다. 한편 사이클론 치도는 이날 새벽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채 모잠비크 부부 팸바 남쪽 약 40km 지점에 상륙했다고 모잠비크 기상 당국이 밝혔다. 기상 당국은 사이클론 치도로 인해 전날에도 북부 해안지방에서 정전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모잠비크 유니세프 대변인인 가이 테일러는 사이클론 치도로 많은 주택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보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이로 인해 현지 학교와 의료시설이 폐쇄된 상태라고 전했다(출처: 연합뉴스).

###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시편 90:1-2)

하나님, 마요트를 강타한 초강력 사이클론으로 인해 거주지 피해뿐 아니라 사망자가 수백 명이나 수천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 가운데 놓인 처참한 이 땅을 돌봐주십시오. 식량과 식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아직 구조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곳의 위급한 자들을 속히 구조하여 주소서. 가난하며 복음에 무지한 마요트에 땅과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대대에 거처가 되어주시고 여호와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 ▲ 중남미 국가들, ‘안전·정의·발전 위한 동맹’ 결성

고질적인 치안 불안을 사회 문제로 안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이 여러 국제기관과 함께 지역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연합체를 출범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주개발은행(IDB)은 12일 카리브해 섬나라인 바베이도스의 수도 브리짓타운에서 ‘안전, 정의, 발전을 위한 동맹’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일랑 고우드파잉 IDB 총재는 보도자료에서 “조직범죄는 국경을 넘어 활동하기 때문에, 역내 과감한 대응이 요구된다”며, 연합체가 불법시장·금융 차단, 보안사법당국 역량 강화, 취약계층 보호라는 3가지 과제를 핵심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 연합체에는 아르헨티나, 바베이도스, 벨리즈,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과테말라, 가이아나, 온두라스, 자메이카,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바하마, 우루과이 등 18개 국가가 참여했으며, 미주기구(OAS),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세계은행, 중남미개발은행(CAF) 등 11개 조직도 동참했다. IDB에 따르면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범죄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3.4%에 달하며, 이는 연구개발 예산의 1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시편 7:9-11)**

하나님, 치안과 범죄가 오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중남미 국가들이 여러 국제기관과 함께 연합체를 세워 지역 안보를 위한 일에 힘쓰고 있음을 돌아보옵소서. 이 일이 세워진 목적에 맞게 운영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갱단과 폭력 등으로 고통 받는 백성들의 신음이 잦아들게 하소서. 모든 죄악이 시작되는 인간의 마음 안에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는 길은 십자가의 복음뿐이오니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주 앞에 몸 된 교회가 믿음의 영적 전쟁을 싸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중남미 영혼들이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며 방패가 되어주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 ▲ 튀르키예, “디지털 기기 의존증이 정신적 문제 일으켜”

튀르키예 정부 전문가가 디지털 기기 의존증이 청소년과 어린이들 사이에서 ‘가상 자폐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18일 경고했다고 뉴시스가 현지 매체 휴리에트데일리뉴스를 인용해 전했다. 튀르키예 방송 및 미디어 규제당국의 데니스 굴러 부위원장은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과 FOMO(기회를 놓칠 것 같은 불안감)가 수면 패턴 붕괴, 불안, 자존감 저하 등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상 자폐증’은 소통 능력 지연과 감정적 반응 결여,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특징으로 하는 증상으로, 어린 나이에 과도하게 디지털 콘텐츠에 노출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튀르키예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6세 이하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규제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국회 아동인권 특위의 라디에 세제르 카티르시오글루 위원장도 가상 자폐증 증가를 의회에서 문제로 제기하며 심각성을 경고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2)**

하나님, 과도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으로 튀르키예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가상 자폐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를 일으켜 점점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되고 있는 이 세대를 긍휼히 여기소서. 튀르키예 정부에 문제와 상황에 대처할 지혜를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은 선하신 하나님 뿐이오니 주께서 이 나라에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신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소서.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세대에 전파되어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르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케 되는 복된 통로로 거듭나게 하옵소서.